[프로야구][종합]김태형 감독 "200승은 코칭스태프, 선수, 팬 덕분"

등록 2017.06.02 22:24:51 | 수정 2017.06.07 20:27:2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LG 트윈스 대 두산베어스의 경기, 2:1로 승리한 두산 김태형 감독이 선발 함덕주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17.05.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문성대 기자 = 두산 베어스 김태형(50) 감독이 구단 역대 최소경기 200승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두산은 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더스틴 니퍼트의 7이닝 2실점 호투와 16안타를 터뜨린 타선을 앞세워 15-4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김태형 감독은 200승 감독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2년 전 두산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래 첫 번째 승리, 50번째 승리, 100번째 승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번째 승리라니 감회가 새롭다. 헌신적인 코칭스태프와 좋은 선수들을 만난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200승 달성할 수 있었다. 매일 같이 야구장을 찾아주시는 열성적인 팬들이 있어서 200승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몇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나날을 보냈다. 팬들이 적잖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서서히 우리 야구를 펼치고 있다. 200승은 오늘로 잊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두산 지휘봉을 잡은 김태형 감독은 두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200승(2무137패) 고지를 밟은 감독이 됐다. 339경기 만에 달성해 종전 구단 기록(378경기 김경문·김성근)을 갈아치웠다.

프로야구를 통틀어서 김태형 감독보다 빠른 속도로 200승을 달성한 사령탑은 삼성 류중일 감독(336경기)밖에 없다. 3위는 전 넥센 사령탑 염경엽 감독(347경기)이다.

두산은 2015년 144경기에서 79승65패를 기록했고, 통합 우승을 차지한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93승1무50패의 호성적을 올렸다. 이번 시즌 51경기에서 28승1무22패를 기록했다.

김태형 감독은 2015년 두산을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고, 지난해 21년 만에 KBO리그 통합 우승이자 창단 첫 한국시리즈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뛰어난 용병술과 경기운영, 소통의 리더십으로 두산을 강팀으로 조련했다.

sdm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